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93863호

SINCE 1989 창간 31 주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257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음력 10월 24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2공항 여론 수렴안 접점찾기 항로는…

도의회 연내 자체조사 시사… 국토부 "결과 수용 없다"
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마지막 협의 결과 초미관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이번 주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이 조만간 만나 여론조사와 관련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주 회의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해 이번 주 초까지 제주도민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비롯해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안에 대해 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12월 중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여론조사 내용상 제2공항에 대한 찬반만 물어야 한다며 의회와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도의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수용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제주를 찾아 양측의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으로 남은 12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도와 의회 간의 마지막 협의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관심사다. 그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문항에 대해 적극적인 합의로 공동 여론조사가 이뤄질지, 아니면 막판 협의마저 결렬돼 의회 독자적으로 자체조사로 진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달로 활동을 마치는 특위로서는 결렬시 자체 여론조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이번주나 다음 주중 여론조사의 방향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립한 원안 그대로 내년도 제2공항 예산 473억원을 확정했다. 다만 제2공항 예산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마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민여론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유채꽃밭에서 무 수확 7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유채꽃 향기를 맡으며 무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고금리 농어촌진흥기금 제도 개선 절실"

한라일보-(사)제주와미래연구원 두 번째 토론 진행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에 가까운 고금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최근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라는 토론 프로그램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 관련기사 9면

이번 토론에는 송창우 제주와미래연구원 원장이 사회자로,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저금리 시대, 농어촌진흥기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송창우 원장은 "제주지역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0.7%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1%대에 비하면 제주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말고 제주도에서 4.1%를 부담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신용대출 금리 4.8%가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현길호 위원장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에 빠져있는데 유독 금융기관들이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다"며 거들었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은 소모성 예산들을 직접 관리할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 위원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고금리는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결국 제주도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소모성 예산들을 도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화 국장은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농협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금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탄력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진흥기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 내용 전체 영상은 한라일보 홈페이지 한라TV, 한라일보 유튜브채널 '한라일보TV'와 네이버TV 채널인 '한라일보 뉴스', 그리고 제주와미래연구원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인 '제프리TV'를 통해 볼 수 있다.

김현석기자

제7회 국제전기車엑스포 내일 개막

11일까지 ICC제주서 본행사… 온라인 방식 활용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차 엑스포인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하 'IEVE')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최적의 포맷을 갖춘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돼 '안전 엑스포·청정 엑스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대환·문국현·야코보사마시·알버트 람)는 '전동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라'를 주제로 올해 엑스포 본 행사를 9~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엑스포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그린뉴딜의 핵심인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개발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조직위는 올해 엑스포를 예정대로 지난 4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정부와 제주도의 방역 지침에 맞춰 시기를 세 차례 연기한 끝에 9일 개막한다.

9일 오후 개막식이 열리는 주행사장인 ICC제주 일원에서는 전시와 체험, B2B, 컨퍼런스 등이 제주형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진행된다.

김대환 공동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비대면 문화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도 전면 반영해 9일 개막하는 본 행사도 '안전 엑스포'·'청정 엑스포'·'글로벌 엑스포'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며 주의해달라고 7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차 적발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 이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에는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50만원이 부과된다.

스티커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이 대표적 번호판 가림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민기자

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재난지원금 지원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도지정 및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게 50만원씩, 보유단체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정부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6일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064-710-6643)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도내에는 46명·6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다.

이번 무형문화재 재난지원금은 제주개발공사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된다.

오은지기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첫 무죄 선고 ····· 4면